멸망할 바벨론의 삶의 방식, 사치

(계18:1~24)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멸망할 바벨론의 삶의 방식, 사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였다'고 시제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루어질 일을 확실한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헬라어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근데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사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치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고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사치고 어디까지가 내 분수에 적절한 것입니까?
사치의 가장 두드러진 해악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부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사치의 효용가치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시선을 즐기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보지 않기 위한 장치, 이게 다 사치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사치품은 곧 명품이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 곧 사치품과 같은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히 사치품과 명품이 일치한다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언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사치다, 왜냐하면 사치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 사치에 대해서 본문 7절과 8절에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사치의 악함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갚아주라는 것은 지금 사도요한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갚아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줄 건데, 사치했기 때문에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만큼 갚아줄 것이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말을 할 수 있죠, 마음은 사치하고 싶어 하고, 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계를 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은 그쪽으로 끌려가도 이론적으로는 사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다 알지만, 그렇다고 사치라고 하는 게 이 정도까지일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근본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어디까지가 사치인지 따져볼까요?
재벌가의 며느리나 사모님들이 천만 원짜리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것,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연봉 5천만 원 월급쟁이들의 아내들은 어느 정도까지가 사치가 아닙니까?
한 150만 원짜리, 거기까지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를 사는 건 사치가 아닌 걸까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이해하면서, 사치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대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 한번 따져봅니다.

바벨론은 세속문화가 화려하게 꽃핀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속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다는 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닌데 돈이 많이 벌리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그곳에 권력인 있는 것,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그곳에 번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자랑이 있고, 부러움과 시기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이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성공과 번영과 화려함과 자랑과 부러움과 시기의 시선을 받는 상황,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치입니다.
사치하지 못할 바에는 성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영이 사치로 이어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사치함으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치함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기이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성공을 아직 못했는데도 사치부터 하려는 자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치가 성공의 증표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런 호화로움과 사치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세속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대도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대도시를 향해 마음이 가있고, 이 대도시로 가서 그곳의 흐름과 대세를 지배하고 있는 유행, 거기에 뛰어들어서 앞장서기 위해서 꿈꾸고 이상향으로 생각하면서 생활해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치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를 조장하는 것이고, 사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사치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천국의 대칭개념이에요.
천국의 대칭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어? 아닌데, 천국의 대칭개념은 지옥 아닌가?'라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교리적 차원과 신앙고백적 차원에서는 천국의 대칭개념이 지옥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누가 갑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인정합시다.
예수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앞당겨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마음을 보내는 작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해서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마음을 보내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실천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에 둡니다.
하늘나라의 대칭개념은 지옥이지만,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마음 둘 곳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라는 차원에서의 대칭개념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천적인 면에서, 실제로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하늘나라의 대칭개념은 바벨론이에요.
이 땅에서 사치할 수 있으면서 사는 상황,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천국의 대칭개념입니다.
아무도 마음을 지옥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세례 받은 교인이라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호화로움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에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말씀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대칭개념이 되는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치인데, 도대체 사치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면, 4절의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즉,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론에 마음을 두면서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지금 현재 그 방식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예배당을 짓는 걸 보면 사치의 절정으로 예배당을 지어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다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는 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치가 갖는 영적의 의미가 뭐고, 그게 뭐기에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인 사치 때문에 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본질적인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마음이 비어있어요.
모든 일이 다 인간의 마음이 비어있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외롭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채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크기는 우주보다 크십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채우긴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다, 이 '… 하고 싶다'는 소원 일체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난 것도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원이에요.
내 아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 소원도 그 근본을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원입니다.
모든 소원은 그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져서 비어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채웠어요, 30평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정도의 크기가 돼야 채워지는 마음이 지구 위에서 아파트 집어

넣었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30평짜리 샀을 때 기뻤는데, 1년 살고 보니까 이것도 불만이 됩니다.
불만인데 짐승이 돈을 벌게 해줬어요.
돈을 벌게 하니까 이제 60평짜리로 바꿉니다.
60평을 샀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70평으로 늘리면서 이태리 수입한 대리석으로 온 집을 쳐 발라놓은 그리고 수도꼭지가 18K로 도금된 집을 삽니다.

사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다보니까 만족할 줄 알았는데도 모자라서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하는데, 마침 사탄의 하수인 짐승이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돈을 따라서 모자라는 것에 대한 욕망을 쫓아가고 쫓아가서, 하나님 크기만큼 채워야 만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크기만큼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우주를 가져도 차질 않아요. 그래서 사치가 끝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이게 바로 사치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소원이 생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 결핍으로 생긴 소원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바벨론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다짐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달린 바다짐승의 몸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가득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성모독이 뭡니까?
내 마음이 만족하려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보다는 30평짜리 아파트가 더 낫다, 350만원짜리 명품 백이 더 낫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 있어? 명품 백이 있어야 기쁘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6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 있어?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급 빌라가 있어야 기쁘지!
사치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종합예술이 바로 사치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당시로서 사치에 사용됐던 품목들이 다 나옵니다.
사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도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이라는 대체 어떻게 아느냐?
하여간, 그것을 갖고 싶어서 사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사치입니다.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까?
하늘나라에 마음을 둬서 성령님께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에 공간과 차원을 초월해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이 하나님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면서 내 마음이

만족해지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이 땅에 대해서는 소원이 없어져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대단한 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소원을 하나님에 대한 소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니까.
예를 들어, 사소한 만년필 하나 사고 싶다, 만년필 없어도 되고 300원짜리 볼펜 사용하면 되죠. 근데 그 만년필 사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만년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명품 백, 명품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갖고 싶은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할 때 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원이라도 세상에 대한 소원을 직접적으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쥐었을 때는 다 사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내가 만년필이 없으니까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내가 명품 차가 없으므로 만족함이 없는데…'
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사느냐?
옷이고 가방이고 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마음을 하늘에 두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근데 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 소원이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마음에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원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소원과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옷을 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차를 사게 하시고, 아파트를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반테 사는 사람도 있고, 모닝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에쿠스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에쿠스 사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치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 문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냐? 안 하냐, 이게 사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크냐 안 크냐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그 물건이 꼭 갖고 싶어서 산 것이라면 다 사치품목입니다.
회개하시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세요.
아, 이거 너무 한 얘기 아니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천만 원짜리 가방 살 때 나는 백만 원짜리라도 갖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사치냐?
그건 사치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돈 있는 자들이 천만 원짜리 사는 것은 일반적인 사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명품 백이 없어서 산 것이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악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놔두고 왜 이 세상 것에 대해 소원을 갖습니까?
기뻐하지 말래요, 누가? 만족하지 말래요, 누가? 행복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만 당해야 되고 비참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라고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십자가사건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미 세상이 가득 차서 죽기도 힘들다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차있던 세상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날마다 하나님이 더 내 안에 쌓이고, 쌓이고 채워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무한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짐승이 돈을 갖다 주니까…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짐승에게 여러분을 맡긴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버려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돈도 많이 생겨서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 들어가는데, 아무리 추구해 들어가도 만족이 없으니까, 결국은 물 마시는 컵까지도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은 종이컵에 마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추구해 들어가서 금 도기로 만든 컵에 물을 먹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는 끝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삶의 방면에 나타나는 거죠.

사치가 뭡니까?
천국의 실천적 대칭개념이 되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번영이 있고, 세상에 호화로움이 있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뚜렷하게 구분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인 사치 때문에, 이 사치의 전염성에 조직으로서의 교회도 거의 먹히다시피 한 이 상황, 십자가 붙잡고 헤어 나올 당신의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사치의 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